

## 복식문화와 여성<sup>1)</sup>

林 淑 子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의류직물학과 교수

### Clothing Culture and Korean Women

Sook-Ja L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 目 次

I. 머릿말	IV. 여성복식과 여성의 삶
II. 한국여성 복식의 변천	V. 맺는 말
III. 여성복식의 디자인 특성과 그 의미	참고문헌

#### Abstract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find out what is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design elements of Korean women's costume and its influence by analyzing the trend of Korean women's costume during the period of 1890 and 1995.

The research was analyzed by a total of 854 random samples of clothing styles collected from materials in the museums and from articles of three leading newspapers and one of the best women's magazines in Korea.

The changing trend of Korean women's costume was found out to be as follows:

1. In around 1910s, the trend of Korean women's costume has been changed into two-tier structure of both Korean and Western styles, and the typical and traditional Korean women's street wears such as "Chang-ot" and "Tskechima" have been gradually diminished.
2. From 1920s, length of the Korean skirt, which was unnecessarily long and inconvenient, has been getting shorter for the convenience of walking. In addition, Korean women's underwear has become simplified, and sports wear could be seen

1) 본 논문은 학술진흥원에서 1995년에 지급한 "생활문화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의 일부 논문임.

- for the first time in Korea.
3. During 1960s, the Western clothing styles have been increased rather than Korean styles as the street wear of the Korean women.
  4. In 1970s, blue jeans, mini-skirts and casual wears have become a trend of fashion for women in Korea.
  5. In 1980s, a fashion of unisex mode has arrived in this country, and from the year of 1987, wearing of panties among the Korean women has been increased rather than skirts wearing for the street wear.
  6. During 1990s, various forma of complex styles came into being in such styles as so-called "orange class style," "protruding navel T-shirts" and "runner wear speedy." From mid-1990s, Korean women have turned out to prefer the cute and light costumes by placing emphasis on the image of intellectual, professional and functional wears.

The changing special feature of the Korean women's clothing designs could be distinctively observed during 1960s as the modernization policies in Korea have been processed during the period.

The clothing trend before 1960 was to change and to solve problems of inconvenient and impractical wears, but the trend after 1960 was seen as a change to confirm a trend of the world fashion.

From mid-1990s, however, preference of functional and professional design will be interpreted as an improving phenomenon of Korean women's self-conceited conception socially and an unquestionable changing pattern of Korean women's life.

## I. 머릿말

의복은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복식은 여성과 더 가깝게 연상되고 있고, 복식 문화는 여성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일반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복식문화는 인간에 의하여 구조화된 물질문화로서, 일상적인 생활양식에 따라 습관적으로 착용하는 의복 스타일의 미적 특성과 의복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나 신념,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복식문화에는 의복의 예술성, 착장방법 및 착용습관과 같이 가시적인 면과 복식에 대한 지식, 신념, 태도와 같은 비가시적인 면이 있다.

문화의 산물인 복식은 시대상,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인간이 접하고 있는 자연환경, 구조환경, 행동환경에서 보호적 도구로 (임숙자, 1988) 이용되며 동시에 성, 연령, 직업, 사회계층, 가치관, 태도, 성격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이 있는 복식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대인 지각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외모를 통하여 한 사람의 내적 측면인 가치관, 신념, 성격, 지적 능력, 사회문화적 역할 등의 예측을 30초 안에 가능하게 하고, 그 예측에 따라 지각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조절하고 있다 (Kaiser, 1991). 그러므로 Goffman 은 "복식은 사람이 받을 대우의 한계를 결정하는 기

호(sign)이다.”(Kaiser, 1991)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여성복식은 한국 여성의 이미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여성의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연구해야 하는 것은 여성학적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연구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개화기인 1890년부터 1995년까지 100년간의 여성복식의 흐름을 고찰하고 한국여성복식과 서양 여성복식의 디자인 특성은 무엇이며 디자인의 의미가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한국복식의 분석 방법으로는 1890년대부터 1995년까지의 100년 동안의 복식을 10년을 단위로 구분하여 연대별로 살펴 보았다.

자료수집은 1890년대~1950년대까지는 이화여자대학교 시청각교육연구원이 소장한 자료를 주축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여성, 패션 50년 등을 참고하였고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당대의 대표적인 여성잡지를 참조하였다. 채택한 잡지는 1955년~1968년은 여원, 1969년~1982년은 의상, 1983년~1992년 3월은 월간 멋, 1992년 4월~1995년 12월은 마리끌레르였다.

분석은 시대마다의 의복양식을 대변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월간 여성잡지와 패션전문잡지에 전신의 차림새가 명확하게 실린 것으로 중복되지 않는 첫번째 스타일과 마지막 스타일의 사진 총 854개를 분석 비교하였다.

## II. 한국여성복식의 변천

한국여성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 개화기인 1890년대에 양장이 등장하였고 이때의 대표적 스타일은 검은 걸 스타일, 지고 드레스, 버슬 스타일 등 S자형 실루엣이며, 대부분이 긴 플레어 스커트에 트레인이 달렸다. 그러나 일반 부녀자들의 저고리는 20cm 안팎으로 매우 짧아 가리개용 허리띠가 필요할 정도였고 치마는 긴 치마를 입었으나 하류층 여성들은 폭이 좁고 짧은 '두루치'를 입기도 하였다.

처녀는 땡기머리, 부녀자들은 쪽진 머리나 엷은 머리였으며, 어여 머리나 큰 머리의 궁중양식도 존재하였다. 양장의 경우에는 머리를 위로 올리고 레이스로 장식한 챙이 넓은 모자를 쓰기도 하였다.

신발은 혼직초혜가 유행하였으나 일부 상류층에서는 양장에 구두를 신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900년대에 장옷을 폐지하고 우산을 장옷의 대용품으로 사용하였고 흰 수건을 우산 대신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쓰개치마가 폐지되고 통치마 저고리를 입었으며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면서 한국여성복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양장은 하이네크 라인에 모자를 쓰고, 길이가 긴 드레스나 블라우스에 롱 스커트를 입었고 스커트에 있던 트레인이 사라졌다.

머리모양은 후반기에 팜프도어가 등장하였고, 카프린과 같은 모자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1910년대에는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전도부인이나 여학생들의 저고리 길이는 길어졌으나

일반 부녀자들의 저고리 길이는 오히려 더욱 짧아졌다.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짧은 치마, 일반 부녀자들은 긴 치마를 입음으로써 치마길이가 2중 구조로 변하게 되었다.

양장으로는 원피스가 중심이었고 수트나 재킷,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이 등장하였고 초기에는 S자형 실루엣에서 후기에는 앰파이어 실루엣이 나타났다. 스커트 길이가 변화하여 바닥까지 오던 스커트 길이는 1918년 이후에 발등까지 짧아졌고 네크라인은 대부분이 하이네크라인이며, 소매는 비숍슬리브, 종 모양의 7부 슬리브, 퍼프 슬리브 등이었다.

머리모양으로는 다리미자투, 책머리, 둘레머리 등이 여학생들에게 유행하였으나 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은 트레머리로 점차 아래분량이 줄면서 가리마에 땡기를 드리우는 스타일로 변하였다. 양장모로는 1915년경 부터 카프린과 카노체라는 챙이 넓고 화려한 모자를 쓰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에는 양장차림이 활발해져, 양장이나 치마·저고리 위에 코트를 입는 신여성이 등장하였다. 또한 의복이 간소화되는 추세에 따라 불편했던 속옷이 간편한 내의로 바뀌었다. 속적삼은 여자용 셔츠로 대체되었고, 팬티를 입게 되자 속속곳과 다리속곳은 없어지고, 그 위에 다 단속곳, 바지를 입게 되었다. 특히 짧은 통치마를 입던 신여성들은(유회경 p.439, 1982) 사루마다라는 짧은 무명 팬티와 어깨 허리가 달린 속치마를 입었다.

양장은 중반 이후부터 장식이 사라지고 직선적인 스타일이 나타났으며, 원피스의 경우 형태가 다양해졌고 정구복, 야구복, 기체체조복과 같은 운동복이 등장하였다. 스커트 길이는 초기의 발목 길이가 1928년에는 무릎까지 짧아졌고, 코트 길이도 1921년에는 발목길이, 1925년에는 장단지, 1928년에는 무릎 길이로 올라갔으며 코트 외에 방한용 케이프도 많이 입혀졌다.

머리모양으로는 1926년경에 앞머리를 약간 내리는 애교머리형의 칩지머리가 유행하였으나, 단발이 오래 지속되었고 크로셰 모자가 유행하였다.

양말이 들어오면서 버선 착용이 줄어들었고, 일반 부녀자들은 고무신을 신었으나 신여성들 사이에서는 고무신 외에 경계화나 운동화, 구두를 신었고 하이힐, 중힐, 부츠, 로우힐의 반부츠, 흑백의 콤파구두가 유행하였다.

1930년대에는 일반 부녀자들도 한복과 양장을 같이 입었고 개량 한복에 스웨터를 입는 차림이 많았으며, 서양식 머리 모양이나 숄, 양산, 핸드백 등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양장은 여성적인 부드러운 스타일로 원피스나 오버블라우스에 벨트를 하여 허리선을 강조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머리모양으로는 1930년경부터 히사시가미가 사라지고 머리를 길게 땡아 땡기를 드리는 스타일이 대부분이었다. 이화학생들 사이에는 단발머리가 계속 유행하였으며, 1937년에는 젊은 여성들이 긴머리를 자르고 퍼머넌트를 하였고, 구두가 보편화되었다.

1940년대 초기에 일본은 전투복으로 여성들에게 몸빼를 입도록 강요하였고, 이의 영향으로 해방 후에 여성들의 바지 착용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간단복' 이라는 허리에 벨트가 있고 양옆에 포켓이 있는 원피스를 입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해방이 되자 처음에는 몸빼와 간단복 대신에 재래 한복이나 통치마 저고리를 입었으나 미군정 실시와 해외 동포의 귀국으로 다시 양복화가 촉진되었다. 양장은 해방 전까지는 직선적인 형으로 스커트 길이가 짧고 활동적인 군복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나, 해방 이후에는 퍼프 슬리브에 허리가 강조된 재킷과 폭 넓은 플레어 스커트의 부드럽고 여성적인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플레어 스커트는 극히 일

부에만 유행하였다.

머리모양도 해방 이후에는 일제 말에 금지되었던 퍼머넌트 스타일이 다시 등장하였으며, 신발은 대체로 앞이 둥근 형태로 발등에 끈이 있는 모양이나 옥스포드 스타일의 구두가 유행하였다.

1950년대에 한복의 저고리 길이가 허리까지 길어지고 치마는 발목이 보일 정도로 짧아졌으며 한복은 일상복보다는 명절이나 관혼상제의 예복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남성적인 재킷과 타이트 스커트의 밀리터리 룩이 입혀졌으나 점차 여성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짧은 상의와 넓은 플레어 스커트의 뉴-룩(New look)이 1953년 이후 일반 여성들에게 폭넓게 유행되었다. 1950년대 말에는 폭넓은 플레어 스커트를 부풀려 보이도록 하기 위해 페티코트가 사용되었으며, 그 후에 슬림 스커트, 타이트 스커트로 유행이 바뀌면서 스커트의 길이도 조금씩 짧아졌다. 또한 합성섬유가 등장하면서 기계주름을 잡은 아코디언 폴리츠 스커트가 대단한 선풍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955~1956년에는 H라인, A라인이, 1958년에는 슈미즈 드레스, 색 드레스가 유행하였고 타이트한 실루엣의 원피스에 프렌치 슬리브의 긴 소매나 7부 소매가 유행하였다.

머리모양은 전기과파, 웨이브 과파 등 다양한 과파법과 헤어 스타일이 중반 이후에 소개되었으며, 헵번의 숏 커트 스타일도 유행하였다.

신발은 군용 자동차 타이어로 만든 타이어 신이 유행하였다. 초기의 구두는 끈달린 단화가, 후기에는 굽이 가늘어지고 굽 끝에 쇠장식을 붙인 하이힐이 유행하였다.

1960년대에는 양장이 일상복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초기에는 튜블러 형의 오버코트나 색 드레스(Sack dress) 등의 단순한 박스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통이 좁고 몸에 맞는 맘보바지 형태의 슬랙스도 등장하였다. 스커트의 길이는 샤넬 라인으로 짧아지고, 소매의 경우 프렌치 슬리브는 셋인 슬리브와 7부 길이의 만다린 슬리브로 변했다.

중반까지 색 드레스(Sack dress)가 유행하다가, 중반이후에는 상의는 몸에 맞는 스타일로 변화했고 스커트는 A라인의 형태로 바뀌었다. 소매도 좁고 길어졌으며 웨이스트 라인이 허리선에서 약간 높아진 high waist line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또 다른 특징으로 미니 스커트와 팬탈롱의 등장을 들 수 있다. 1970년대초에는 스커트의 길이가 무릎 위 20cm 이상까지 올라갔으며 팬탈롱이라 불리는 테일러드 팬츠 수트와 진(Jean)으로 만든 바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머리모양으로는 언밸런스 단발이나 헤어 밴드를 하는 것이 유행하고, 후기에는 보비형의 머리 모양이 등장하였다. 모자는 챙이 늘어진 것, 병거지 모양, 니트 모양 등 다양한 종류가 인기를 끌었다.

신발은 로오힐이 등장하였고 1968년 이후에는 미니 스커트에 롱 부츠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1971년 봄부터는 핫 팬츠가 유행하여 핫 팬츠와 오버 코트를 이용한 레이어드 스타일이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무릎 길이의 큐롯 수트도 유행하였다.

중반 이후에 팬탈롱의 폭이 더 넓어지고 바지 길이도 길어졌으며 이와 함께 롱 드레스나 월 남치마로 불리던 롱 스커터트가 유행하였다. 겨울용 하의로 누빈 롱 스커터트가 등장하였다. 후반에는 루즈 룩과 레이어드 룩이 유행하였으며, 바지는 힘이 여유있고 밑단으로 내려올수록 좁아지는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농민풍 블라우스와 집시 스타일의 민

속풍이 유행하였으며, 패딩으로 어깨를 강조한 재킷과 슬림 스커트, 통이 좁고 짧아진 바지와 박스형 원피스가 등장하였다.

머리모양은 스트레이트와 전체적으로 웨이브가 있는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나 젊은 층에서는 짧은 생머리가 유행하였고 1979년에는 디스코 머리가 등장하였다.

신발은 발목길이가 짧은 앵글 부츠의 착용이 많아졌으며, 후반기에는 구두코가 좁고 뾰족하고 굽이 가늘고 높은 구두가 유행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어깨를 강조하는 빅 앤 루즈(big & loose) 실루엣의 레이어드 룩, 후반에는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두드러져 바디 컨셔스 (body conscious)의 원칙하에 피트 앤 플레어 (fit & flare)를 비롯하여 A라인, Y라인 등의 스타일 나타났다.

스커트 길이는 미니부터 샬라라인, 미디, 맥시에 이르기까지 혼재하였으며, 편리하고 활동적인 바지도 많이 착용되었다. 1982년 전후로 배기형의 디스코 바지가 유행하였고, 7부 길이의 바지도 인기를 끌었다. 후반에 승마바지인 죠드퍼즈(일명 고리바지)가 유행하였다. 1989년경에는 통바지(wide pants)가 유행하는 등 다양한 바지 스타일의 등장함으로써 여러 스타일의 바지가 착용된 것이 1980년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 바지의 착용율이 스커트의 착용율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스포츠 의류가 일상화, 대중화 되어 다운 파커가 겨울에 유행하였으며, 스톤워싱이라는 패션진이 등장하였다.

머리모양으로는 1980년대 중반에 스트레이트 단발형의 머리가, 후기에는 헤어무스와 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앞머리를 세우는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며, 롱 스트레이트나 풀어헤친 긴 퍼머넌트 머리가 젊은 층에 유행하였다.

신발은 단화, 운동화 등이 애용되었으며, 화려한 색상의 스타킹과 반짝거리는 원색 에너텔 구두가 유행하였다.

1990년대에는 장식적 요소를 최대한으로 절제함으로써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여성미를 강조한 미니와 미디의 레이어드 룩이 등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100년간의 복식의 흐름을 분석할 때 한국의 여성복식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190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어왔던 한복이 선교사의 영향으로 양장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1900년부터 여성복식이 한복과 양장의 이중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둘째, 여성의 행동반경이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국한된 남성의존적인 여성의 삶을 나타내는 장옷, 쓰개치마가 1900년대에 폐지되었다.

셋째, 비활동적이던 치마길이가 변화되고, 통치마가 등장하였으며, 간편한 속옷, 운동복, 바지 등이 1920년 경에 나타났다.

넷째, 1960년대에 여성의 외출복으로 양장의 착용이 한복의 착용율보다 증가하였다.

다섯째, 미니스커트, 핫팬츠, 청바지, casual wear가 1970년에 나타났다.

여섯째, unisex mode가 1980년대에 유행하였고, 1987년에 미혼여성의 바지착용율이 58.4%로 스커트의 착용율보다 더 많았다.

일곱째, 오렌지족, 야타족, 폭주족 등의 신체노출이 많은 “배꼽티”가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여성들에게는 단순하면서도 품위있고 활동에 편리한 pants suit가 1990년대에 유행하기도 하였다.

### Ⅲ. 여성복식의 디자인 특성과 그 의미

의복착용동기와 장식욕구, sexism, 의복요인, 패션변화와 변화주기는 남녀 의복에 차이가 있었다.

남녀가 의복을 착용하는 동기를 보면 장식적, 보호적 목적이 일차적인 의복 착용동기이고, 수치 관념적 목적이 부차적인 동기(Ryan, 1966; Horn, 1991) 정리할 수 있다. 장식적, 보호적, 수치관념적 의복착용 동기중 성별의 차가 크게 나타나는 동기는 장식적 동기로서, 여성은 남성보다 사치하고 장식적인 것으로 일반화 되고 있다. 그러므로 Spancer 경은 “여자에게 있어서 장식은 종교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준다”고 언급함으로써, 여성을 내면적인 것보다 외형적이고 장식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성별 정체성(sex-identity)이 우세했던 빅토리아 시대 이전에는 남성복이 여성복보다 더 화려했고 더 장식적이었으며 (Payne, 1965), 동물의 경우도 수컷이 암컷보다 더 화려한 점으로 보아 장식에 대한 관심은 남성이 더 많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의복의 장식욕구는 여성이 더 크다고 확립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오늘날 여성이 장식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빅토리아 시대 이후 장식방법과 장식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을 사회압력이라는 강제적인 힘과 무엇이 여성에게 가치있는 일인가를 설명하는 보상적인 힘에 의해서 차별화 시킴으로써 여성이 화장, 의복, 장신구 등에 관심을 더 갖도록 길들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Hurlock은 여성의 새로운 의복의 착용 욕구를 섹시즘(sexism)과 관련시켜서 이론을 전개하였다. Hurlock은 “여성인 패션의 수용하는 동기는 동성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이성을 의식해서” 라고 (Hurlock, 1976) 남성편견 중심으로 해석했고, 장식 부위도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성기관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여성의 장식행위는 이성에 대한 관심과 관계가 있다고 남성위주로 해석하여 여성의 장식적 욕구를 섹시즘과 동일하게 취급했다. 뿐만 아니라 Flügel은 “여성의 장식은 ‘섹스어필’(sex appeal) ‘섹스자극’(sex stimulation) (Flügel, 1972)이 없는 장식은 장식이 아니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여성을 남성의 섹스의 대상으로 상징화 시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남성복과 여성복의 색상, 디자인 소재의 차이는 어떠한가?

남성복과 여성복의 차이가 극적으로 과장되기 시작했던 빅토리아 시대에는 여성복은 여성적인 특질을 강조하고, 남성복은 여성적인 속성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여성복의 색상은 화려한 색상으로, 남성복의 색상은 어두운 모드의 색상(dingy mode)으로 구분시켰다.

디자인 측면에서 볼 때도 남녀의 차이를 보여 여성복 디자인은 목, 어깨, 가슴 등을 많이 노출시켰고 골반을 강조했으며 남성복은 어깨를 강조시켰다.

여성의 풍만한 가슴과 꼴셋(corset)을 이용한 16~17인치 정도의 허리장식과 골반 강조는 여성의 생산능력을 암시하는 디자인이었다. 또한 여러 겹의 크리노린도 보행시에는 치마를 올려야만 했고, 치마를 올리므로써 성적 흥분은 상징하는 발목이 노출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크리노린의 착용은 또 다른 여성의 육체를 강조하는 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크리노린과 같이 남성보다 양적으로 많고 부피가 큰 의복을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성적 공격에 쉽게 무너지도록 여성의 의복은 디자인되기도 했다. 좋은 예로 여성들의 착용했던 drawer 라는 속옷은, 속팬티가 없이 두 가래이로 되어 있고, 허리부분에서 만나게 된 완전히 아래 방향이 벌려진, 헐렁하고 품이 넓은 옷으로써 남성이 마음만 먹으면 여성을 남성의 악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옷이 디자인 되었고 남성의 성적욕구를 용이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옷이었다.

의복소재의 경우, 여성의 스커트는 무거웠고 강철과 뼈로 만들어진 폴셋, 딱 조이는 신발, 보온이 결여된 얇은 의복들은 여성이 누구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몸을 관리하기 어려운 정도의 불편한 의복이었다. 특히 이러한 의복행동은 빅토리아 시대에 상류계층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의복 행태로 귀족계층의 여아에게 일찍부터 폴셋을 입히는 습관이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의 근육이 마비되어 남성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불편한 의복은 여성의 신체 움직임을 구속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비활동적인 의복은 여성의 삶을 수동적이고 종속적으로 생활하도록 유도한 의복이었다. 여성의 의복이 비활동적이고 장식적인 의복이었던 것에 비하여, 빅토리아 시대의 남성의 의복은 여성 복식과는 차이가 있어서 편안함과 건강, 실용성을 추구하는 의복이었다.

또한 중류계층 이상의 여성은 노동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고 참여할 수도 없는 의복을 착용하도록 준거적인 힘이 관여됨으로써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여자의 첫번째 의무이며, 남편이 있는 경우는 남편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아내는 교태와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의 외모는 장식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생활이 비경제적, 탈경제적이 되도록 의복으로 여성 행동을 억압 조정하였다.

패션 변화에도 남녀의 차이가 있어서 여성복은 다양하게 변화되었고, 남성의 패션은 거의 변화가 없는 획일적인 의복이 주류를 이루었다. 즉, 여성은 유행에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도록 구조적, 행동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것은 남성은 가치있고 이성적이며 정신력을 상징하는 일에 비중을 두도록 한 것이며, 여성은 경박하고 하찮은 쾌락이나 비정신적이고 비이성적인 감성에 비중을 두도록 사회가 남성과 여성을 길들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생활의 기본윤리는 성실성으로 유능함, 단정함, 자제력에 삶의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그외에도 경제력이 있고 부유한 남성들은 예쁜 여성을 재산가의 애완물처럼 가정에 비치시켰고 여성을 남성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징표처럼 소유하였으나 부유한 여성에게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과 경제력과는 분리시키는 탈경제적인 여성으로 만들었다.

#### IV. 여성복식과 여성의 삶

한국과 서양의 복식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할 때 남성의 복식은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것에 비하여 여성의 복식은 부드럽고 관능적이며 비활동적이면서, 탈경제적인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여성복식의 디자인은 이성 지각자에게 여성을 생물학적인 차이에 근거를 둔 성적 대상의 여성으로 만들었고, 여성은 약하고 감성적이며, 어린이와 같이 수줍고 예민하며 순수성을 지녔기 때문에, 오직 남성의 보호 하에서만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회 저면에 내재되어 있는 강제적인 힘에 의하여 여성을 비전문적이고 미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또한 William James의 주장대로 여성복은 여성의 자아개념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Ryan, 1966)



여성은 어린이와 천사, 인간과 천사의 중간적인 존재자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것보다 육체적이고, 내면적인 것보다 외형적이며, 강인함보다 부드러움, 이기주의보다 이타주의에, 또한 자기희생적인 애정적 보살핌에 더욱 더 가치를 부여하도록 여성에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신구조는 여성들에게 여성이 자신의 요구나 주장보다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용이하게 여성을 억압하였고, 여성 차별화가 당연한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사회제도적인 억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외에도 사회발달은 가정에서 출발했으며 인간문명의 핵심은 가족관계의 구성에서부터라고 주장함으로써 가정과 모성에 대한 생각을 이상화, 미화시켰고, 여성의 정체성과 존재가치를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고립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원만한 가정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한 가정에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남성성과,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여성성이 공존하는 것이 이상적인 가정 형태라고 정당화 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성별 정체성 (sex identity)은 여성에게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출생 직후에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의복착용행동에서 나타나 출생전부터 여아와 남아의 의복을 구분하여 준비하고 있다. 즉 여아의 의복과 장난감, 침구, 가구는 분홍색, 남아는 푸른색으로 구분시켰다. 색상심리 측면에서 볼 때 분홍색은 정서와 관계하는 것이고 푸른색은 서비스와 관련되고 있다. 즉 분홍색은 아동이 사회화 하는 과정에서 애정생활에 더 관심을 두도록 하였고, 푸른색은 한 가정의 경제적 분야를 담당하고 가계를 관리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여아는 밝은 청색이 보편화 되어 푸른색의 의복착용이 가능하지만 남아의 경우는 붉은색의 의복은 입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복행동의 의미는 여아의 경우는 정서적인 일 이외에 서비스적인 (봉사), 일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반면 남아는 정서적인 생활은 허용이 안되고,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정체감, 의존감과 같은 감정도 부정하도록 훈련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양에서도 여성과 남성을 이분화된 성 개념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남아의 경우는 스포츠, 수송을 의미하는 비행기나 배, 크기가 큰 동물의 문양을 아동복 문양으로 디자인하는 것에 비하여, 여아의 경우는 꽃이나 작고 귀여운 고양이, 강아지, 병아리 등의 애완용 동물의 문양을 아동복 디자인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양은 남아의 경우는 과감하고, 모험적이며 과학, 문명 등을 연상시키기 위한 환경적 자극이라고 한다면 여아의 경우는 큰 것보다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섬세한 것에 신경을 쓰도록 훈련시키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디자인에 있어서도 소년들은 어깨를 강조하는 디자인이 많았고, 소녀들의 경우는 엉덩이에 장식의 많이 함으로써, 성인이 되었을 때 여성의 역할이 어떠하다는 것을 연상하면서 성장하도록 하였다. 여성은 부드러운 둥근 윤곽선을, 남성의 경우는 건강하고, 강건한 근육이 바람직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강한 색상, 볼륨있는 소재로 몸집을 크게 해주었고, 각이 있고 볼륨이 있는 가슴과 어깨를 만들기 위하여 패드(pad)를 넣으므로써 육체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도록 연출하였다.

결국 이러한 의복 이미지는 아동이 사회화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남아와 여아의 성별 정체감을 자연스럽게 이분시키고 일상화시키므로 해서 여성의 삶에 불이익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즉 보상적인 힘, 합법적, 준거적인 힘은 여성을 정신보다 육체에, 진지함보다 경솔함에,

강인함보다 연약하고 부드러움에, 내면적인 것보다 외형적인 것에, 지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것에, 노련보다 미숙에, 전문성보다 비전문성에, 지배적인 것보다 복종적인 것에 중요성을 부여시킴으로써,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 가치를 절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그리고 능력과 활동 차원에서는 비활동적, 탈 경제적인 여성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남존여비의 여성 종속의 논리를 정착시켰다고 볼 수 있다.

## V. 맺는 말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의복은 물질적 자아, 사회적 자아, 영적 자아의 구성요소로 의복 착용자에게는 자아개념,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집단생활에서는 착용자의 첫인상의 의복이미지가 타인의 행동을 조절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의복의 기능을 생각할 때 장옷, 쓰개치마, 긴치마저고리는 여성이미지를 보다 더 비활동적이고 불경제적인 존재로 여성이미지를 형성시켰을 뿐 아니라 여성의 생활을 남성의존적인 삶의 형태로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활동적인 치마길, 간편한 속옷, 운동복, 여성을 상징하는 스커트 대신 바지 착용율의 증가는 여성들의 의식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와서 여성들로 하여금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삶으로 여성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20년 전후의 장옷, 쓰개치마의 폐지는 기존 여성들의 정신세계에 변화를 가져와 신교육에 대한 여성의 열망을 더욱더 증대시키는 일을 가시화 했고, 활동적인 바지나 여러 종류의 운동복은 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변화를 가져왔으며, 여성의 행동 반경을 확대시키기도 하였다. 1970~1980년대의 청바지의 등장, 편안한 knit wear의 등장, unisex mode의 의복은 여성적인 성역할을 이상적인 여성이미지로 생각했던 여성의 사고에 변화를 가져와서 여성들이 양성성 성역할을 선호하게 되었다. 물론 의복외에도 1980년대 있었던 통금해제, 해외여행 자유화, Color TV의 등장, Asian Game, 여권운동 등이 여성의 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복이 사회 구성원의 사회, 문화, 경제, 심리 변화를 상징하고 여성의 복식 디자인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대표적 상징이기 때문에 장옷, 쓰개치마에서 pants suit로 변화했다는 것은 여성학적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선도자적 역할을 한 사람은 이화여전 출신의 신교육을 받은 이화인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여성학적 입장에서 본 이화인의 존재라는 것 또한 그 의미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여성복식의 흐름을 여성학적 의미와 관련시켜서 생각할 때 여성복식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즉 1960년대이전의 여성의복의 변화는 이화여전 출신의 신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여성 의복이 갖고 있는 육체적·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편하고, 비활동적이며, 비경제적인 의복요인인 디자인을 개선한 의복 변화였다고 한다면 1960년대 이후의 의복변화는 여성 의식이 크게 부각되지 못한 세계적인 패션의 흐름에 단순히 참여하고, 동조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960년대경의 미국군인 문화(G.I. 문화)는 여성들의 육체선을 강조한 sexy한 여성이미지를 위한 의복이 유행하였고, 1970년대 이후는 한국여성들의 신체구조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세계적인 패션이 그대로 전파된 여성 의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사회는 감성적이고 서비스 주도적이며, 정보가 우선적인 사회로 변하고 사적(가정), 공적(사회)개념이 없어지며, 자기 변신의 욕구가 강해지는 사회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여성은 직관력과 식별력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논리와 성적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포악이 아닌 평화와 풍요를 상징하는 여성이 사회개혁의 원천이 되어, 남성중심적인 것에서 여성중심적인 사회로 대치되어야 할 시점에서 의복의 변화는 1900년대 초기에 신교육을 받은 이화여전 출신의 여성들이 보여 주었던 한국복식인 우리 것을 지키면서 세계패션을 수용하는 것이 한국의 여성상을 올바르게 정착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중심적인 행동환경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하여 사회구성원의 자아개념, 성격, 가치관, 태도 형성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는 여성학적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연구보다 선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라고 생각한다(임숙자, 1988). 모든 학문의 진수가 복식학에 있고 인간이 꿈꾸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으면서 전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학문이 복식학이라는 Thomas Carlyle을 인용할 때 복식문화의 변화는 인류문화의 변화를 용이하게 재형성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래의 여성은 독립적이고, 능력있는 여성이어야 하고, 여성의 의복이미지도 독립적이고 지적이며, 세련된 여성이미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여성의 의복이미지는 현재 T.V. 방송매체가 만들고 있는 가볍고, 귀엽고, 섹시한 의복 이미지가 아닌, 지적이고, 전문여성에 적합한 단순하면서도 품위있고 편안하면서도 정선된 의복이미지여야 하고 이러한 여성복식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학문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 미래사회를 결정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의복이 직접·간접으로 착용자의 자아개념, 가치관, 태도는 물론, 여성의 사회적 대접 내지 사회적 인정을 유도하는 일차적 도구라는 점에서 볼 때 여성복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여성의 시각에서 재조명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치마 저고리, 기모노, 사리와 같은 여성의복이 한국여성, 일본여성 그리고 인도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비교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1. Cash, Thomas and Thomas Pruzinsky, *Body Image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0.
2. Flügel, J. C., *The Psychology of Fashion*.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72.
3. Horn, J. J. & Gurel L. M.,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91.
4. Hurlock, Elizabeth B., *The Psychology of Dress*. Arno Press, 1976.
5. Kaiser, Susan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91.
6. Langner, L., *The Importance of Wearing Clothes*. New York, Hastings House, 1996.
7. Lurie, A., *The Language of Clothes*. New York, Random House, 1981.
8. Morrison, Bonnie, "The Importance of Balanced Perspective, The Environments of Man", *Man-Environment Systems*, 4:171-178.

9. Payne, Banch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5.
10. 강숙희, “개화기 우리 나라 여성 계몽 운동, 1880~1910년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83.
11. 고석주, “외모와 억압”, 한국여성학, 제8집, 1992.
12. 박미영, 정종숙, “여성 해방 운동이 서양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1850~1950)”, 한국의류학회지, 15-3, pp. 239-250.
13. 김순심, “우리 나라 복식 현상에 관한 연구 - 1960년대와 70년대를 중심으로-”, 복식(한국복식학회), 제16호, pp. 141-148, 1991.
14. 남윤숙, “한국 현대 여성 복식 제도의 변천 과정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15. 박찬부, “우리 나라 개화기 이후의 복식에 관한 사회적 측면에서 일고”, 인하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제3집, pp. 26-43, 1986.
16. 유희경, “한국 여성 복식의 연구”, 한국여성사 II,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 173-284, 1972.
17. 이명희, “근대한국 복식의 변화 요인”, 복식(한국복식학회) 제5권 pp. 253-263, 1981.
18. 아옥수, 한국 근세 여성사학, 하권, 서울: 규문각, 1985.
19. 임숙자의, 의복의 심리학, 서울: 교문사, 1990.
20. 임숙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 복식의 기능과 미래의 역할”, 국제복식학회 주제논문, 1988-A.
21. 임숙자, “여대생의 의복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 논총, 이화여대, 1988.
22. 임숙자, “패션 변화 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복식(한국복식학회), 1990.
23. 임숙자, “한국생활문화 100년-의상의 멋”, 태평양 장학 재단, 1995.
24. 장필화, “몸에 대한 연구의 여성학적 접근”, 한국 여성학, 제8집, 1992.
25. 정진경, “심리학 연구의 여성학적 접근방법”, 한국 여성학 제10집, 1994.
26. 정금자, 이재연, 서정자, “한국 문화에 나타난 전통적 여인상”, 아세아 여성 연구, 제24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 문제 연구소, pp. 1-25, 1985.
27. 정세현, “한국 여성의 신문화 운동 -1920년대 초기의 여성 운동을 중심으로-”, 아세아 여성 연구, 제10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 문제 연구소, pp. 331-357, 1971.
28. 정 완, “이조 시대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 아세아 여성 연구, 제3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 문제 연구소, pp. 39-83, 1964.
29. 최경자, 패션 50년, 서울: 의상사 출판국, 1981.
30. 한명숙, “한국 복식 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